

국산 전투기 KF-21 시제 5호기도 첫 비행 성공

등록 2023.05.16 15:36:36 | 수정 2023.05.16 19:40:05

1호기 이후 10개월만...45분간 비행



[사천=뉴시스] 사진공동취재단 =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'국방기자단 초청, 국정과제 성과 확인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방위사업청장 방산 현장 방문'에서 KF-21 시제 4호기가 격납고를 나오고 있다. 2023.05.10.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김지은 기자 =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 '보라매'의 시제 5호기가 16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.

방위사업청은 이날 KF-21 시제 5호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2시19분에 이륙해 45분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다.

시제 5호기 첫 비행은 작년 7월 1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 후 10개월 만이다. 이번 비행으로 KF-21 단좌 시제기 4대 모두 비행에 성공하게 됐다.

이 시제기는 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(AESA)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검증 시험을 수행하며, 올해 하반기에는 공중급유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.

KF-21 전투기는 시제 6호기까지 시험을 마친 뒤 양산체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공군에 투입될 전망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